전북 임실군 오수면은 올해 말 국내 최초로 공설 반려동물 화장장을 설립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들어서 진정한 반려동물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펫뉴스

‘주인 구한 개’ 전설 오수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만든다

공원·훈련장·캠핑장 등 조성 국내 첫 공설 화장장도 설치

반려동물의 주인이 풀밭에서 낮잠을 잔다. 그런데 한쪽에서 시작된 들불이 주인을 향한다. 아무리 깨워도 주인이 일어나지 않자, 주인을 구하려는 개가 몸에 물을 적셔 불을 끈다. 주인을 구한 개는 숨을 거둔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전해져 내려오는 오수 의견(義犬)의 전설이다.

오수면은 의견 전설을 기리며 해마다 충견을 기리는 의견문화제를 열고 있다. 또한 오수 의견을 복원하고 있는 육종연구소를 설치해 주인에 충성심이 강한 개를 길러내고 있다.

단순히 의견을 기리는 것에서 탈피해 오수면은 반려동물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 오수면에는 올해 말 국내 최초로 공설 반려동물 화장장을 들어선다. 또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지어진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반려견 공원과 훈련장, 놀이터 등이 설치된다. 반려동물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설치돼 반려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테마파크 인근에 공설 반려동물 화장장을 도입해 반려동물의 생과 사를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껏 반려동물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 도입이 쉽지 않았다.

반려동물 화장장은 전국에서 수요가 많아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로 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진주, 양산, 의령, 김해 등 5곳 지자체에서 동물화장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오수면에서는 심민 임실군수가 주민들 설득한 끝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테마파크와 화장장이 건립되면 오수면은 진정한 반려동물 유토피아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프랑스·일본에서 반려견보다 반려묘가 더 많은 이유?

고령화 시대, 관리 쉬운 고양이 각광

프랑스·일본 ‘초고령 사회’ 진입 반려묘 수가 반려견 수 뛰어넘어 산책 필요없고 위생 용이해 선호

‘혁명의 나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9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기대 수명은 여성의 경우 2013년 85세에서 2050년 90.3세로 증가하고, 남성은 78.7세에서 86.8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프랑스에 주목할만한 현상이 있다. 반려묘가 반려견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프랑스 반려동물 식품제조 연맹(FACCO)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프랑스 내 반려견 수는 734만여 마리인데 비해 반려묘 수는 1348만여 마리에 달한다. 2014~2016년 사이 반려묘 수는 6.3% 증가했고, 반려견의 수는 1.1%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반려인이 반려견을 반려묘보다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랑스의 사례를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려견보다 반려묘의 숫자가 더 많은 국가는 또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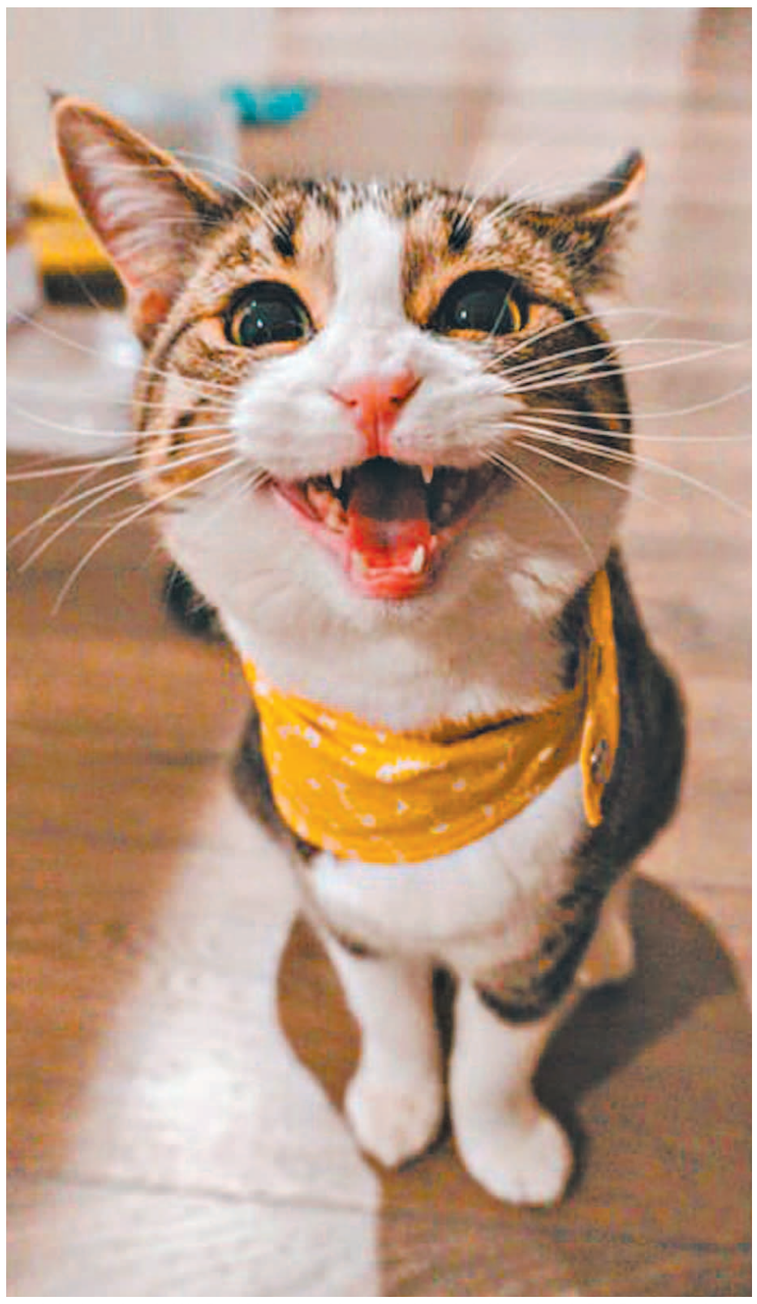
일본 반려동물 사료협회에 따르면 2018년 반려묘 수는 964만 마리이며, 반려견 수는 890만 마리이다. 반려묘가 무려 74만 마리나 더 많다.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일본의 반려견 수는 2014년 971만 마리, 2015년 943만 마리, 2016년 935만 마리, 2017년 892만 마리, 2018년 890만 마리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에 반해 반려묘 수는 2014년 949만 마리에서 2015년 927만 마리로 감소했다가 2016년에 930만 마리로 반등한 이후 2017년 952만 마리에서 2018년 964만 마리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에서 반려묘가 반려견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인구 구성에 주목한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일본도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로 꼽힌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8.4%가 노인인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다.



‘노인대국’ 프랑스와 일본은 산책이 필요 없고 반려견에 비해 위생 관리가 용이한 반려묘의 선호 사상이 뚜렷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반려묘를 기르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펫뉴스

노인들은 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개는 활동성이 강해 수시로 산책을 시켜줘야 한다. 오래간만에 산책에 나선 개가 기운을 쓰면서 갑자기 달리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 개와 산책하던 노인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위생 관리도 까다롭다. 수시로 털을 다듬고 목욕을 시켜야 한다. 이 또한 노인들이 감당하기 버겁다.

반면 고양이는 따로 산책을 시킬 필요가 없다. 개에 비해 위생 관리도 용이하다. 이것이 바로 노인대국 프랑스와 일본에 반려묘 숫자가 많은 이유다.

한국도 고령화율(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올해 15%에서 2040년 34%, 2060년 44%까지 올라간다. 반려묘 대세 사회가 머지않아 보인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동물등록방식서 ‘인식표’ 제외

훼손 가능성 높아…내장칩 방식 유도 주민 갈등 조장 ‘개파라치’ 제도 폐지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방식 변경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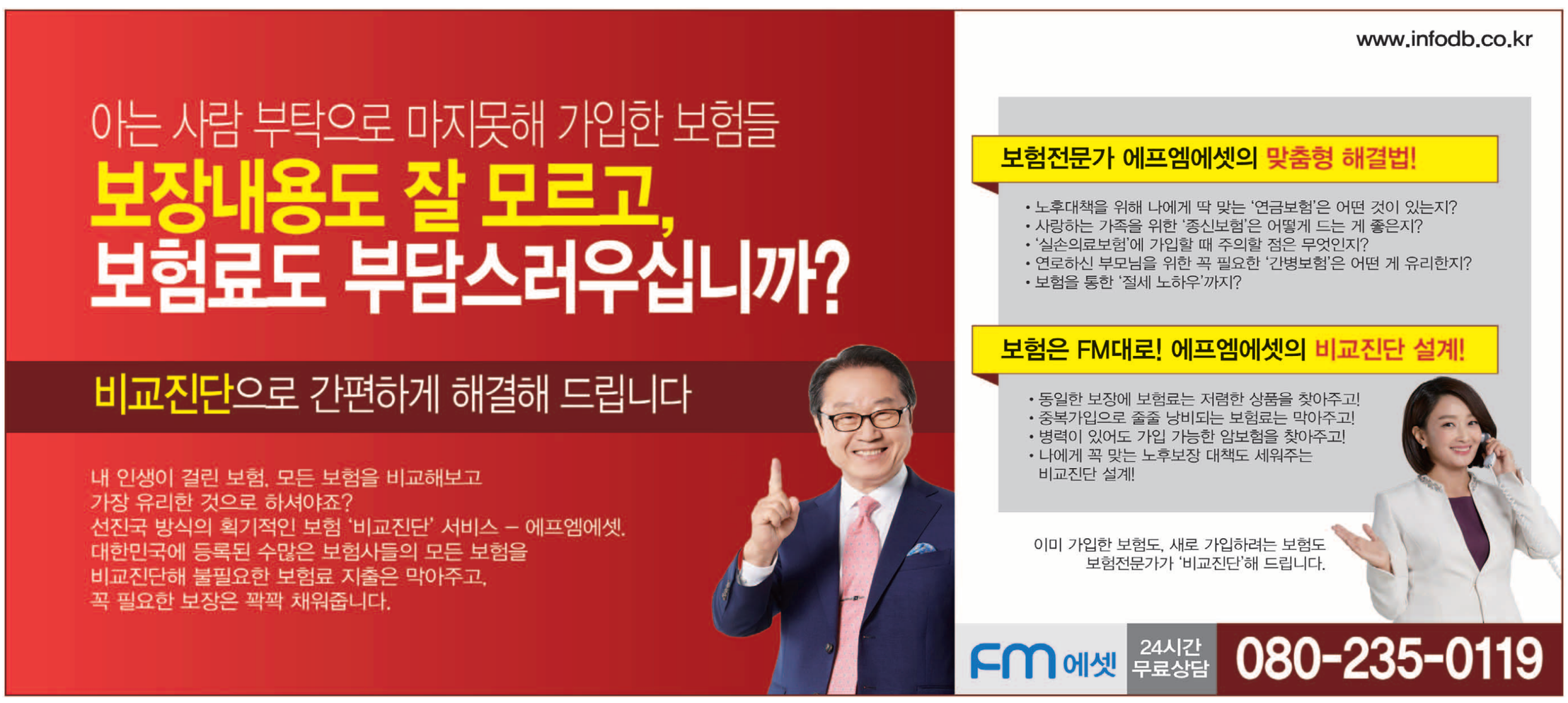
기존에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은 인식표와 외장칩, 내장칩 등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내장칩 44%, 외장칩 31%, 인식표 24%의 비율로 동물등록이 이뤄졌다.

인식표는 동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반려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목걸이처럼 착용시킨다. 외장칩은 스캐너로 반려인과 반려견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인식표처럼 외부에 착용시킨다. 내장칩은 반려견의 몸속에 반려견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칩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고양이 대상 동물등록 시범사업에서는 내장칩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인식표나 외장칩은 외부에 착용하는 점 때문에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크다. 이에 정부는 인식표 방식을 배제했으며, 궁극적으로 내장칩 방식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장칩은 반려인들이 부작용을 우려하여 채택률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결국 내장칩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조항과 포상금 지급 기준도 삭제됐다. ‘개파라치’ 조항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란희 객원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